

종지에 관한 이해

金正泰*

目次	
I. 머리말	(2) 신인조화의 방법
II. 종지에 관한 이해	(3) 신인조화의 결과
1. 종지의 일반적 개념	3. 해원상생의 이해
2.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개념	(1) 해원상생의 목적
III.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이해	(2) 해원상생의 방법
1. 음양합덕의 이해	(3) 해원상생의 결과
(1) 음양합덕의 목적	4. 도통진경의 이해
(2) 음양합덕의 방법	(1) 도통진경의 목적
(3) 음양합덕의 결과	(2) 도통진경 실현을 위한 방법
2. 신인조화의 이해	(3) 도통진경 실현의 결과
(1) 신인조화의 목적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논문은 대순사상논총에서 그간 논의되어 왔던 각각의 종지를 정리하여 종지가 지니는 전반적인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종지가 지니는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여 보고, 그것을 통해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가 지니는 총체적인 의미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종지가 지니는 내용을 목적·방법·결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종지가 지니는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볼 것이다.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종지가 지니는 구조의 이해를 통해 대순사상에서 종지가 의 관계를 검토하여 볼 것이다.

참고로 논문의 분량관계로 가능한 『전경』의 예문은 본문에 실지 않고 다만 편과 장절로 그것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종지에 관한 이해

1. 종지의 일반적 개념

종지란 일종(一宗)·일파(一派)의 핵심적인 교의(教義)나 종취(宗趣)를 가리킨다. 그리고 종지는 하나의 경(經)에 담겨있는 내용들 가운데, 중심되는 논지(論旨)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종치(宗致)·종체(宗體)·종요(宗要)·종교(宗教)등으로 표현 한다.¹⁾ 따라서 종지는 종(宗)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종(宗)은 핵심적인 것이면서 주(主)가 되는 것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므로 경(經)·논(論)등의 교설(敎說)가운데, 추요(樞要=중심요소)가 되는 종의(敎義)를 종(宗)이라 하겠다. 따라서 종(宗)은 종요(宗要)·종지(宗旨)의 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개(個個)의 경(經)·논(論)에 대해서 그 각각의 종(宗)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판정(判定)하는 것을 종명(宗明)이라 하는데, 이는 석의상(釋義上)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불교의 예를 든다면 유마경(維摩經)은 불가사의해설(不可思議解說)을 종(宗)으로 하고, 대품경(大品經)은 공혜(空慧)를 종(宗)으로 하며, 승만경(勝鬘經)은 일승(一乘)을 종(宗)으로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예라 하겠다. 중국에는 종(宗)의 동이(同異)에 따라서 불교를 4宗·5宗·6宗·8宗·10宗등으로 나누기도 했다. 또한 존중하는 교의(敎義)를 함께하는 일단(一團)의 종단(宗團)을 종(宗)이라 한다. 그리고 한 종단이 다시 나뉘어져 분리되는 경우에 그것을 파(派)라고 한다. 그래서 종단을 다른 종단과 구별하는데 종문(宗門)·종파(宗派)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그 일파(一派)에서 설(說)하는 교의(敎義)의 취지(趣旨)를 종지(宗旨)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종파(宗派)에서 설한 교의를 종의(宗義) 또는 종승(宗

1) 洪法院編輯部, 『佛敎學大辭典』, (서울:홍법원, 1993), 1442쪽

乘)이라 하며, 종의(宗義)의 학(學)을 종학(宗學)이라 한다. 또한 종(宗)의 기풍(氣風)을 종풍(宗風)·종(宗)의 문제(門弟)를 종도(宗徒)라 하며, 종파의 우열(優劣)이나 진위(眞僞)에 관한 논의(論義)를 종론(宗論)이라고 한다.²⁾

그러면 종지와 관련한 문헌상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확인하여 보겠다.

광택법화소(光宅法華疏)에 「諸經의 宗旨를 要略하면 三이 있다」
 행사초상(行事鈔上)의 一에 「尋討者는 宗旨를 알지 못한다」
 증도가(證道歌)에 「法幢을 세우고 宗旨를 세운다」
 신승전(神僧傳)에 「불도징(佛圖澄)이 深經을 妙解하고 世論을 旁通하여 講說하는 날에 바로 宗旨를 標하여 始·末의 文言을 昭然히 알게 하였다」 詳考해보니 이것은 晉·唐間의 말이다」. 宗致라 지었는데 유의경(劉義慶)의 世說을 보면 순찬(荀粲)의 말을 실었는데, 宗致가 같지 않다 하였고, 또는 宗指라고도 한다.
 장희태자풍연(章懷太子馮衍)傳注를 보면 “維綱은 宗指와 같다”
 “所信하는 所屬의 宗派이기도 함”

라고 종지를 설명하고 있다.³⁾

또한 「辭源」에서는 宗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主要的意指, 弘明集十梁武帝(蕭衍) 勅答臣下神滅論: “標其宗旨, 辨其短長”, 也作宗致, 神僧傳一: “佛圖澄妙解深經, 旁通世論, 講說之曰, 止標宗致, 使始末文言, 昭然可了”. 本指佛教宗門主要教義, 後也指某一學派的主要思想, 北齊書孫靈暉傳: “三禮及三傳, 皆通宗旨”, 唐劉知幾史通序例: “(華)嶠言辭簡質, 絳致溫雅, 味其宗旨, 亦孟堅(班固字)之亞歟”, 後也稱行事的目的和意圖爲宗旨, ⁴⁾

이와 같이 종지는 소신(所信)하는 소속(所屬)의 종파적 의미와 함께, 종문(宗門)의 취지(趣旨)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⁵⁾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지가 경(經)·논(論)에 대한 주요한 해석의 결과라고 할 때, 특정한 진리나 종교에서 그것의 이해를 통해 나타나는 요체(要諦)의 표현(종지)이나 시각,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무

2) 위의 책, 1435쪽 참조

3) 韓國佛教大辭典編纂委員會, 「韓國佛教大辭典」, (서울:明文堂, 1995), 6권 136쪽

4)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中國:1987) 440쪽

5)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善一文化社, 1977), 1855쪽

수한 종단이나 종파를 만들어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종지의 중대한 특징을 감안할 때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도주님께서 정하신 종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종통과 진리의 이해에 대한 정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개념

이 장에서는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각각의 종지의 내용과 관련성을 살피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그것의 이해를 위해 각각의 종지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관련성을 통해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개념을 이해하여 볼 것이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밝힌 것처럼 도주께서 제정하신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라는 순차성을 지니며, 그러한 순차에는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종지의 순차적 질서에 따른 관련성을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음양합덕은 대순진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설명한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대순사상에서 음양적 관계에 있는 신과 인간에 주목하여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에서 인간완성의 방안으로서 대두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인간이외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이는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구제의 대상에 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특징은 천지공사의 적용범위나 대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음양합덕을 실현하며,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신인조화의 실현하여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그간 원과 한에 의해 막혔던 신과 인간의 본질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여, 서로 상보할 수 입장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인조화의 결과는 신·인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인조화의 결과는 해원상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구체의 참다운 의미가 실현되어 서로의 원한을 풀고 해원상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과정은 도통 진경이라는 이상세계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차적 특징은 대순진리의 종지에 나타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종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전체의 교리체계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겠다.

대순진리의 전체적 교리의 파악과 그에 따른 이해를 위해서는 대순진리의 출현배경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의 출현배경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선천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천의 현실은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된 세상이었으며, 그 결과 원한이 발생하고 원한은 천지인 삼계에 가득차 상도가 무너짐에 따라 진멸이라는 한계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출현의 선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는 선천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천세계의 문제발생의 근원적인 배경은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이며, 그것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선천세계의 대응적 세계로 나타나는 후천선경건설은 불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상극의 도수를 뜯어 고치는 공사와 함께 원과 한은 해원시키는 공사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상제께서는 상극도수를 상생도수로 전환하는 공사와 무수한 해원공사를 펼치셨는데 이 때 이러한 공사를 통해 나타나는 원리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음양합덕 신인조화의 부재는(교법1:62, 공사2:20) 결과적으로 원과 상극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상제께서 선천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음양의 부조화와 함께 음양합덕의 부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음양의 도수조정을 통해 음양합덕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사를 보시게 된다.

음양의 도수조정과 음양합덕 실현을 위한 공사의 구체적 방법은 정음정양과 일음일양의 원리를 통해 행해졌다.(공사2:16)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음양의 평등과 성숙을 위한 공사가 시행되어졌다.(교법 2:57)

공사의 결과는 선천세계에 나타난 음양의 부조화가 개선되고 음양이 평등하게 되어 화평한 세계가 건설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음양합덕의 원리가 신인조화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양자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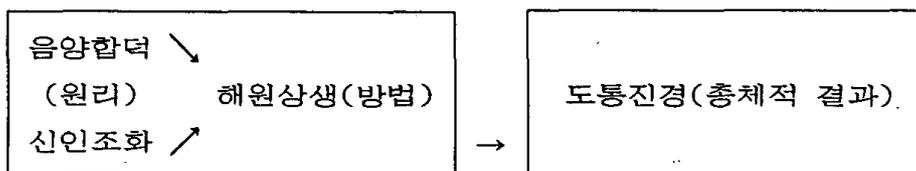
대순사상에서 신과 인간은 음양적 관계체이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나타난다.(행록3:8, 44, 교법1:54, 예시10) 음양적 관계로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긴밀한 관련성은 신인조화가 화평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적인 원리이며, 그것을 통해 신명과 인간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의 결과는 아래의 내용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느니라...⁶⁾

이러한 사실을 통해볼 때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상극을 상생으로 그리고 원과 한을 해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임을 직감하게 되며, 그것의 결과는 해원상생과 도통진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석해 보면 해원상생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원리가 작용되어 나타난 천지공사의 총체적 이법(理法)이다. 따라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그 세부적인 원리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원리는 천지공사에 적용되어 그것을 통해 도통진경이라는 이상세계의 출현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처럼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이라는 종지의 순

6) 『典經』, 예시 10절

차적 의미는 천지공사에 적용되어지는 내용과 방법이며 결과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해원상생과 도통진경으로 방법과 결과가 대별되는데 해원은 도통진경을 이루는 방법(공사)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볼 때 대순진리의 전체적인 교리 속에서 종지는 핵심적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도주께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종통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이해하는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즉 상제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틀과 방향을 종지로 부터 얻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제님의 가르침이 교과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 도주님의 가르침은 상제님의 진리에 바탕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참고서와 같은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종지의 이해를 통해 도주께서 상제님의 진리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동시에 사상적 측면에서 종통계승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게 된다.

Ⅲ.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이해

이 장에서는 앞서 살핀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개념을 토대로 각각의 종지가 지니는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방법·결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지가 지니는 전반적인 의미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기초를 이해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1.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이해

(1) 음양합덕의 목적

음양합덕⁷⁾은 “음양의 덕을 합친다”.⁸⁾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음양

7) 『典經』에서는 음양합덕과 관련하여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덕(德)을 통해 삼라만상을 존재케 하고 유지시키며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 과정과 내용을 도(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양합덕이 음양의 덕을 합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음양의 덕을 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 음양합덕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음양합덕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음양합덕은 크게는 천지로부터 작게는 군생만물에 나타난 있는 모든 음양의 덕을 합하고, 그것을 통해 대덕(大德)을 실현하여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 제생 43의 내용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서는 “三德即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삼덕즉천덕지덕인덕야 통합 위지대덕야 ‘세가지 덕인 즉 천덕 지덕 인덕인데 모두 합친 것을 큰 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천지인 삼계의 덕이 합쳐질 때 대덕이 실현되어짐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음양의 덕을 합하는데 있으므로, 음양합덕의 구체적인 목적은 대덕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음양합덕의 방법

음양합덕이 대덕을 실현하여 천지만물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원리로

있다고 파악되는 내용이 제생(濟生) 43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양상합연후유변화지도(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 음양을 서로 합한 연후에 변화의 도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음양합덕은 새로운 변화의 도를 출현케 하는 것이며 새로운 변화의 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로 주역(周易)의 이론이나 주석(註釋)을 나타낸 역전(易傳)에서는 도(道)는 만물의 운동 변화 법칙이라고 여겼다. 그 내용에서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음양 쌍방이 상호 대립하고 서로 작용하는 법칙을 도(道)라고 한 것이다. 즉 음양의 작용과 조화 즉 합덕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도가 출현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유추해 보면 음양합덕의 결과는 결국 선천과는 다른 후천의 새로운 변화의 도(道)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마련키 위해서는 음양의 상합 즉 합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8) 대순진리의 종지(宗旨)를 태극도(太極道)에서는 신조(信條)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태극도요람에서는 ‘음양(陰陽)이 덕(德)을 합하고神明(神明)과 인간이 잘 조화하며 원통을 풀어 서로 살려주며 도(道)를 통하여 참다운 경지(境地)에 이름은 태극(太極)의 진리다.’ 라고 신조를 설명하고 있다.

보았을 때 음양합덕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음양합덕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음양합덕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음양의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즉 음양의 대등함이 없이는 음양합덕이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기 위해 정음정양(正陰正陽)과 일음일양(一陰一陽)(공사 2장 16절)공사를 보신 것으로 이해된다.

음양의 대등한 조건을 모색하시기 위해 음양으로 대별되는 건곤의 위치를 바르게 조정하신 공사를 통해 도수를 새롭게 정립하신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정음정양이란 어휘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음양이 정위치에 놓여 있을 때 음양 각자가 지니고 있는 덕을 합할 수 있는 계기가 모색된다.

선천세계에서는 음양의 제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대등함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음양합덕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음양의 부조화를 극복하고 정음정양을 통해 음양을 대등하고 정확한 위치에 서게하여 그것을 통해 조화와 합덕을 모색하셨던 것이다.

이에 반해 후천에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 음양(건·곤, 남·녀, 신·인)의 조화가 실현되어 만유의 조화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음양의 차별이 없는 완성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합덕을 위한 두 번째의 방법은 음양 각자를 성숙하게 하는데 있다. 즉 음양 각자의 성숙이 없이는 합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양 각자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성숙한 남성과 성숙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질 때 음양합덕이 가능함으로 그와 관련한 『典經』 내용인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 공사는(교법 2장 57절)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음양 각자의 성숙이 없이는 합덕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사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부(大丈夫)는 선천에서 성숙한 남성의 품모와 인격을 갖춘 사람을 별칭(別稱)이었으므로 여성에게는 해당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대장부(大丈夫)라는 호칭을 쓰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사를 행하신 이유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음양합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상제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면서, 음양합덕을 통해 천지의 완성을 추구하고자 한신 상제님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합덕은 후천선경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으로 천지의 모든 것이 음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존재하고 발전되어 간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음양합덕은 천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대순진리의 목적실현을 위한 방법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선경은 음양의 합덕과 조화의 결과로 정음정양(正陰正陽)이 실현되어 나타나는 완성된 세상이며, 음양합덕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후천에서는 음양합덕의 원리를 통해 만유의 조화가 실현되는 것이며, 차별이 없는 완성세계가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3) 음양합덕의 결과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과 원리를 통해 만물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흔히 도(道)라 한다. 따라서 음양(陰陽)은 도(道)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⁹⁾ 즉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인 도(道)로부터 음양이 출현하여 그것의 작용과 조화를 통해 만물이 형성되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음양합덕의 결과는 삼라만상의 올바른 균형과 조화작용을 통해 완성된 세계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도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하여 음양합덕의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대순진리에 나타난 우주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9)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대순지침 18쪽

선천세계는 대순진리의 우주관(宇宙觀)에 비추어 볼 때 성장시대(生長時代)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성장시대의 큰 특징은 분열을 통한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위해 근원으로 부터 음양의 분화(分化)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존재의 존립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시대의 다양성은 결국 투쟁과 대립으로 이어져 원과 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한의 출현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상도(常道)를 무너뜨리게 하였으며, 선천세계는 진멸지경(盡滅之境)이라는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선천의 현실은 대순진리의 출현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양합덕의 필연성이나 출현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감안해볼 때 앞서 언급한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특성상 음양합덕은 선천세계의 부정적 원인과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천세계가 음양의 분화를 통해 발달을 추구했던 시대였지만 음양의 부조화가 출현하여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덕(德)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시대였다면, 후천시대는 분열하였던 것을 다시 통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서로 합쳐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을 합덕시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여 완성을 이룬다는 문제해결의 커다란 구도를 제시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양합덕의 결과는 새로운 도(道)를 실현시키고 창출하는데 그것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이해

(1) 신인조화의 목적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음양합덕의 적용대상은 천지만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¹⁰⁾ 이러한 이유로 음양합덕의

원리를 신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¹¹⁾ 당연히 신인조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인조화의 목적을 아래의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神人以陰陽成造化…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峻人人峻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 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¹²⁾

예문을 통해 나타난 신·인의 관계는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음양으로 나타난다. 신인으로써 음양을 이룰 때 조화가 출현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없으면 신은 뒤에 의탁하고 의지할 바가 없게 되며, 신이 없으면 인간 또한 앞에서 이끌어 주고 의지할 바가 없게 된다. 이처럼 신과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의탁하며 이끌어 주는 상보적 입장에 있다. 따라서 신인의 조화는 완성과 화합으로 나타나게 되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신명과 인간은 서로 기다리는 관계에 있으며, 음양이 서로 합하게 되면 신인은 서로 통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천도가 이루어 지고 지도가 이루어져 신과 인간의 일이 성공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과의 조화는 만유와의 조화이므로 신인의 조화를 통해 만유가 조화를 이루고 완성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인조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지만물을 완성하는데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핀 음양합덕의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의 원리에 기초하여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를 신과 인간에 적용시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양자가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후천선경을 완성하는 구체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지닌 목적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0)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전경, 공사 1장 1절

11) 전경, 제생 43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인위양 신위음(人爲陽 神爲陰 인간은 양이며 신은 음이다)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과 인간이 음양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12) 『전경』 교운 2장 42절

(2) 신인조화의 방법

이 장에서는 신인조화의 구체적인 방법의 이해를 통해 목적실현의 가능성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전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신과 인간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마음이 중요한 매개체(媒介體)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행록3:44)

그러면 『典經』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의 구체적 방법을 이해하여 볼 것이다.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開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¹³⁾

마음은 일차적으로 귀신(신·신명)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매개이다. 마음에는 추기(樞機)·문호(門戶)·도로(道路)와 같은 신과의 접촉을 가능케 하는 기능적인 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개를 통해 신이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추기(樞機)를 열고 닫으며, 문호(門戶)를 출입하고, 도로(道路)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언급한 추기·문호·도로와 같은 매개적 기능을 지닌 마음은 신과의 접촉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그 상태에 따라 그와 관련성을 지니는 귀신과의 접촉을 이루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선한 것을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을 고칠 때 내 마음에 있는 추기·문호·도로는 천지보다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마음의 사심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바른 실천적 노력을 통해 마음에서 신과의 중요한 접촉을 담당하는 추기·문호·도로가 크게 확장되어 마음의 크기가 무

13) 『典經』, 행록, 3장 44절

“마음은 귀신의 추기·문호·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은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한데,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

한하게 확대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의 마음이 천·지·인 삼계를 용사하고 주관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경』에 나타난 마음과 관련한 예문의 내용에는 마음이 천·지·인 삼계를 주관하는 주체이며, 천지의 중앙인 까닭으로 동서남북이 몸이 마음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교운1:66)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신명과의 접촉이나 조화를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자(因子)가 됨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신인조화의 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은 중요한 방법이며 원리임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과 관련한 특징을 요약하면, 우선 마음은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또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심이며, 그것을 통해 만사가 주관된다는 사실은 그리 낯선 이해는 아닐 것이다.¹⁴⁾ 따라서 신인조화의 구체적 방법에 마음(心)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¹⁵⁾

그런데 『전경』은 신명을 통한 신인조화의 또 다른 방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교법3:1,4, 예시7)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신명¹⁶⁾을 인간의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에 출입¹⁷⁾케 하여 부족한 것을 고쳐

14) 대순진리회 교부부, 앞의 책, 14쪽.

훈회에 나타나는 “마음을 속이지 말라” 와 관련하여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主)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邪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本心)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敢行)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專念)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一切)의 죄악을 근절하라.

15) 이와 관련하여 교법 2장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제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불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

16) 신명(神明)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순진리에서 천지신명은 상제님의 명(命)에 의해 천지를 주관한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17) 가슴과 뱃속 그리고 마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 즉 신체적 구조나 명칭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닌 인간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쓴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신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언급한 음양합덕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성숙이 전제될 때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이라는 보다 초월적 존재와의 합일을 위해서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신명은 인간과의 관계(출입)를 통해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인조화의 방법은 인간 각자가 마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도를 통해 스스로 행하고 노력하는 자력적인 방법과 신명을 인간에게 출입케하여 부족함을 개선하여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신명에 의한 타력적인 방법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문(呪文)이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면서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교법2:23)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할 때나 종도들에게 수련이나 수도를 목적으로 많은 종류의 주문을 송독하게 하셨는데, 주문은 종교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되는 짙막한 글귀로 대체로 신탁(神託)이나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문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통해 반복해서 외는 송주(誦呪)가 있고, 주문을 종이에 써서 불사르는 소주(燒呪)의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 효험이 나타난다고 한다.

주문은 주로 치병(治病), 수련(修鍊), 기도(祈禱) 또는 신내림(降靈)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주문수행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교와 무속(巫俗)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문에는 시천주(侍天主), 태을주(太乙呪), 오주(五呪), 오음주(五音呪), 칠성주(七星呪) 등이

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래(古來)로부터 가슴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배속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기관으로 오장의 허실(虛實)은 인간의 체질(體質)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질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因子)로 파악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은 인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¹⁸⁾

상제께서 주문을 천지공사와 수련을 통해 종도들에게 정심(正心)과 성심(誠心)을 다하여 수련케 하셨음은 주문수행을 통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심신의 상태를 만들어 인간과 신명이 조화와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주문을 통해 얻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법좌(法座)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주문수행을 통한 인간과 신명 조화의 추구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신인조화의 중요한 방법이며,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신인조화의 결과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나는 신인조화의 결과는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신인조화는 인간과 신의 조화적 관계를 통해 완성을 이루는 후천 세계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음양합덕의 원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인조화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신인조화에 있어서 그 대상인 신명은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명은 인간의 생사(生死)나 언사(言事)에 관계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심판자로 나타난다.¹⁹⁾

18)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저, 『종교문화사전』, (서울: 집문당, 1991), 593-594쪽

19)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 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둘째로 신명은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가 가능하며²⁰⁾, 스스로의 자율권과 능동성을 지니고 있지만²¹⁾ 상제님의 명(命)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나타난다.²²⁾

세 번째 나타나는 신명의 특징은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자²³⁾ 천지공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 존재이다.²⁴⁾ 끝으로 신명은 인간에게 복록과 인간의 대소사에 관여하며, 인간의 개조(改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며,²⁵⁾ 인간처럼 인격성을 지니는 존재이기도 하다.²⁶⁾

보라고 하셨도다.(『전경』, 행록 1장 29절 참조)

“웅중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에 구릿골로 행차하셨도다.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게 「사나이가 잘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신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은 나왔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연 그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 (『전경』, 행록 4장 20절 참조)

[이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은 『전경』, 행록 5장 4절, 교법 1장 7, 29절, 3장 5, 24절, 예시 67절 등이 있다.]

20)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 (『전경』, 행록 3장 61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4장 11절, 예시 25, 29, 69절 등 참조]

21)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느니라.”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1장 29절, 4장 11절, 공사 2장 4절 등 참조]

22)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보각(珠樓寶閣) 십만칸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전경』, 교법 3장 44절)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교운 2장 28절, 교법 3장 4절, 권지 1장 9절, 예시 25, 29절 등 참조]

23)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 (『전경』, 공사 1장 1 참조)

“이번 공사는 신명해원(神明解冤)을 위주한 것이라” (『전경』, 교운 2장 57절 참조)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 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전경』, 예시 10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공사 1장 9, 29절 참조]

24) 『전경』, 행록 4장 8절, 공사 1장 10절, 2장 19절, 교운 1장 8절, 2장 28절, 교법 3장 18절, 예시 25, 29, 69절 참조

25) 『전경』, 행록 4장 11, 20, 40절, 공사 1장 24절, 3장 5절, 교운 1장 9절, 교법 1장 42, 55절, 2장 17절, 3장 4, 24절, 예시 8절 참조

26)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이처럼 신명은 인간에 비해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인격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존재로 인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그 본래의 직능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신명은 상제의 명(命)에 의해 천지의 일과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존재이며, 인간과 더불어 구제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도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해석되는 존재이며, 해원의 대상이자 해원과 구제를 통해 완성을 추구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인조화라는 거대한 명제를 신과 인간에게 적용시켜 양자를 보다 더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창출해 내는 대순진리의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신관은 인간과의 관련성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용어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신인조화에서 쓰여지고 있는 조화(調化)의 용례가 일반적인 용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조화와 관련된 용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이다. 조화(調和)는 고를: 조(調) 자(字)와 운화할: 화(和) 자(字)가 합쳐져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된다.²⁷⁾

조화의 일반적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조화에서 조화(調化)라는 새로운 용례로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대단히 흥미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조화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존의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례 즉 조어(造語)로써 신인조화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아마도 신인조화의 결과를 해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인조화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용례인 조화(調化)는 조화(調和)에서 조(調) 자(字)와 조화(造化)에서 화(化)자(字)가 지니는 의미를 합성하여 두 가지의

·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이와 관련 구절은 『전경』, 행록 5장 4절, 공사 2장 4, 19절, 교운 1장 9절, 교법 1장 17, 42절 참조]

27)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대순사상논총 1집」,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연구」 342~3면 참조

뜻을 함께 표현하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조어(造語)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에서 표현하고 있는 신인조화는 기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시말하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²⁸⁾ 기존의 용례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조어(造語)로서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가정(假定)을 해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假定)을 바탕으로 신인조화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화(調化)의 용례에서 조(調) 자(字)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한 전경의 내용을 참조하면 신과 인간이 조화(調化)에서는 인간과 신이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특수한 신분을 지닌 다수(多數)의 신명과 인간이 조화적 관계를 이룬다²⁹⁾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화(調和)의 중요성은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즉 단수(單數)가 아닌 다수(多數)의 신명과 인간이 조화(調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리는 관계를 의미하는 조화(調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신 둘 중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유지되는 관계체가 아닌 협조적이며 상생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인조화의 본래적 모습이라면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화(調和)에서 나타나는 조(調) 자(字) 차용(借用)하여, 그 관

28) 전경의 내용에서는 상제님의 독창적인 공사의 방법과 원리, 그리고 진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전경, 공사1장 2절.

“도주께서 통사동(通土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 今不聞 古不聞之道也. 나의 도는 옛날에도 지금도 들을 수 없는 도이다.)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모이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 주셨도다”. 전경, 교운2장 18절

29) 전경, 교운 1장 41절의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 는 내용에서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라는 내용에 주목해 볼 때 신인조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도통은 한사람의 신명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 아닌 유불선의 도통신들에 의해 결정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복수(複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므로 인간과 신명의 신인조화의 관계는 일대일이 아닌 인간이 그 닦은 바의 공덕(功德)과 수도(修道)여하에 따라 다수의 신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신인조화의 용례에서 화(化) 자(字)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다. 대순진리에서 신인조화의 결과는 앞서 살핀 것처럼 도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순진리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신인조화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인조화의 결과는 신선화(神仙化) 다시말하면 지상신선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인조화의 결과인 신선은 결코 반신반인(半神半人)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⁰⁾ 이것은 결국 신인조화를 이룰 경우 반신반인(半神半人)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것과는 다른 별개적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신·인(神·人)과 신선(神仙)은 그 격(格)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선은 일반적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그 수명이 유한(有限)한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신선은 신과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조화로 나타난 신선은 화학적 변화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인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신인의 결과는 신도 인간도 아닌 새로운 창조적 존재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결과는 선천현실의 한계를 극복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조화(造化)에서 화(化) 자(字)가 지닌 뜻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후천선경은 선천세계와는 달리 완성을 이루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통진경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원리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천세계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음양합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음양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과 인간도 합덕 즉 조화(調化)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후천에서는 선천세계와는 달리 신과 인간이 양분(兩分)된 채로 존재하는

30) 대순진리의 목적 중에는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신선화가 대순진리의 목적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것이 아닌 합덕 즉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과 우주의 완성에 있다고 볼 때 그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인간완성의 방법은 신인조화를 통한 도통이며, 그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내용을 염두해 볼 때 인간완성을 위해서는 결국 인간과 신의 조화 그 중에서도 도통신과의 조화는 당연히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이해

(1) 해원상생의 목적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冤)을 풀고 서로 잘살게 한다(相生)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그것은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代名詞)로 쓰여질 만큼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나타내는 종지(宗旨)인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만큼이나 그 내용과 의미가 대단히 방대한 것이어서 해원상생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이 필요할 정도이다.

대순진리의 출현 배경이 되는 선천의 현실은 해원상생 출현의 배경과도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해원상생의 목적은 선천의 올바른 현실인식을 통해 그 의미가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해원상생의 목적을 선천의 현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경」을 통해 나타나는 선천의 현실은 대단히 부정적인 세계로 나타나며 부정적 세계의 원인은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이 쌓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공사1:3) 따라서 상극의 세계를 상생으로 원과 한을 해원하고자 하는 해원상생의 이념은 선천의 현실에서 그 당위적 배경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상제께서 진단하신 선천세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선천세계는 인간과 사물을 비롯하여 세상에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어 있

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한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쌓이고 맺혀 상도(常道)가 무너지고 급기야는 무도병(無道病)에 걸린 진멸지경(盡滅之境)이 되었다.

이렇듯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선천세계를 구제(救濟)하기 위한 원리로 제시된 해원상생은 세계를 광구(匡球)³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며, 원을 풀어 상생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해원상생은 타종교의 사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진리인 것이며,³²⁾ 동시에 해원상생의 원리는 선천세계의 전체속에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³³⁾

해원상생이 지니는 구체적인 목적은 『전경』의 여러 장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해원을 통해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선경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공사1:3, 예시6,9) 이러한 사실을 통해볼 때 해원의 목적은 상생의 도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목적은 원한을 풀어 상생을 실현하고 그를 통해 후천선경을 건설하여 세계의 민생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에 나타난 목적과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31) 대순진리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의 해결을 통해 완전한 구제를 목적으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있는데, 천지공사의 방법에는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는 개조(改造)의 방법과 새롭게 지어 만드시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있다. 이 때 개조의 방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상극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것에 쓰여졌으며, 상생적인 것을 지어 만드는 방법에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쓰여졌는데, 광구(匡救)란 이러한 일련의 공사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김형효는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도(風流道)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상이 바로 상제님의 해원상생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상제님의 사상이 한국사상사에서 저항(抵抗)의 병리학(病理學)을 대신하여 창조(創造)의 생리학(生理學)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형효, 「원시반본(原始返本)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 『증산사상연구』, 제 5집 (서울: 태광문화사, 1979), 48쪽~57쪽 참조.

33) 『典經』, 행록 2장 15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산속의 금수(禽獸)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상제님을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였는데 상제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셨는데 금수들이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숙였는데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어라」 하신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해원의 대상이 인간뿐이 아닌 금수초목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로 확인된다. 따라서 종지에 나타난 목적의 동일함을 통하여 종지가 지니는 공통적 특징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 해원상생의 방법

이 장에서는 해원상생의 목적이 원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선경을 열어 민생을 구제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는데 있다.

『전경』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면 해원상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한 결과는 천지의 개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원과 도수의 조정 다시 말하면 상생으로의 도수조정은 분명 후천개혁을 여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상극에 따른 원과 한으로 지적하고 있다

삼계가 개혁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³⁴⁾

이처럼 선천세계에서 삼계의 개혁(開關)이 일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상극(相克)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던 것에 있다. 따라서 상극에 따른 원한은 세상에 쌓이고 맺혀 천·지·인 삼계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선천세계가 후천개혁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외형적인 성장을 마치고 내면의 성숙을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인간 삶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유아기(乳兒期)로 부터 청년기(青年期)가 외형적(外形的)인 성장을 마련하는 시기라면 그 이후의 시기는 외형적 성장 보다는 내면의 성숙에 초점이

34) 『전경』, 예시 8절

맞추어 진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인간이 완성되는 대표적인 전형(全形)을 보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만일 성숙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흔히 병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후천개벽은 성숙한 어른이 되고자 새로운 삶의 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성숙을 위한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상극에 따른 원과 한에 의해 고착화(固着化)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발달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해소하는 근원적 원리인 해원상생은 병든 우주와 인류는 구하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선천의 포원시대(抱冤時代)가 구천상제께서 짜 놓으신 천지공사의 도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풀려지면서 해원시대(解冤時代)가 도래하고 그를 통해 포원시대를 마감하고 상생시대(相生時代)로 표현되는 후천선경이 도래한다는 시대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포원→해원→상생으로 연결되는 시대관에 비추어 볼 때 해원상생은 후천선경을 건설을 위한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후천선경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을 맺는 일은 억압을 통해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면 해원은 억압되고 막히었던 것을 통하게 하여 무한한 발전과 발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진리는 상생(相生)의 후천선경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해원상생의 진리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후천선경 건설을 목적으로 천·지·인 삼계의 해원공사를 통해 구것을 다각적으로 실천하셨음을 이해하게 된다.

해원(解冤)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천지공사의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1집을 통해 참조하기를 바란다.

상제께서는 선천세계의 천지인 삼계에 가득차 있는 원을 풀고 상생의 후천선경을 건설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실행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공사

에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이법은 두 발할 나위도 없이 해원과 보은의 양원리이며, 이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그것의 대체적(大體的)인 방법에 주목하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을 이루게 위해 행해졌던 해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으로 인해 막히었던 삼계를 통하게 하고 개혁을 열어 후천선경을 열어나가는데 있었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펼쳐나가셨다.(공사1:3, 예시9) 해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면 천지도수의 정리→신명조화→해원→상생의 도→후천선경건설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도의 조화→도수의 정리→무위이화(無爲而化)에 의해 인사가 저절로 풀려진다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제께서 행하신 해원을 위한 기본 법리는 대단히 독창적이며, 순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 주목할 때 해원과 관련하여 상제께서 펼치신 무위이화에 주목하게 된다.

무위이화와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해원시대’라는 말씀을 통해 공사를 통해 원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원이 풀려나가는 시대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원이 쌓여 있거나 맺혀있는 시대가 상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원이 풀려 나가게 되면 자연 상생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포원시대(抱冤時代)→해원시대(解冤時代)→상생시대(相生時代)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무위이화에 기초를 둔 대순진리의 시대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제께서는 무리없는 순차적 질서를 강조하시며, 그러한 원리에 의해 해원의 방법을 펼쳐나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는 바탕에는 인간의 특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법3:24)

상제께서는 해원을 위해 시간을 분할(分割)하고 원을 분배하셨다는 특징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앞서 언급한 시대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생의 후천선경을 열어나가신다는 것과 선천에 바탕을 둔 욕망(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 원을 분배하셨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하고 후천의 해원을 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심판(審判)이 있을 것을 예시하여 그것에 대한 대비(對備)를 하게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해원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그것의 결과를 다음장에서 살펴 보자.

(3) 해원상생의 결과

해원상생의 결과는 앞선 논의에서 충분히 이해한 것처럼 상생의 후천선경을 여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해원의 결과는 상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먼저 상생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해원상생의 결과인 후천선경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겠다.

상생(相生)의 어원(語源)은 대개 오행(五行)의 두가지 작용인 상생과 상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오행의 상생작용은 목→화→토→금→수→목이라는 관계에 따라 상생작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상생은 오행에서 보이는 상생적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살펴보면 오행의 상생작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화→토→금→수→목 라는 일방적 관계에 따라 상생작용을 이루는데 반해 대순진리에서 나타내는 상생(相生)은 일방적(一方的) 관계나 적용범위의 한계(限界)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교운1:66, 제생43) 다시 말하면 일방적 관계나 대상의 제약을 지니지 않고 모든 것에 상생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표현되는 상생은 기존의 오행에서 나타나는 상생과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즉 오행에서의 상생은 서로 주고 받는 상생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를 통한 상생이 이루어 진다면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상생은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수↔화 목↔금) 보이며,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독특성에 대해 학자들은 상극으로 표현되는 선천세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상생의 원리가 실현되는 후천세계가 보다 바람직한 세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도(風流道)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상이 바로 해원상생임을 강조하면서 해원상생이 한국사상사에서 저항(抵抗)의 병리학(病理學)을 대신하여 창조(創造)의 생리학(生理學)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한다.

선천세계는 참혹한 세상으로 구제(救濟)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세상이며, 선천세계가 참혹하게 된 원인을 인간과 사물이 상극(相克)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혀 그것으로 인해 상도(常道)가 무너져 무도병(無道病)에 걸린 데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진멸지경에 처한 세상을 광구(匡球)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을 풀어 상생하는 방법 즉 해원상생(解冤相生)이 그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대순사상은 단순히 기존의 것을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완전한 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에는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는 개조(改造)의 방법과 새롭게 지어 만드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있는데, 상극적인 것은 개조의 방법을 통해 뜯어 고쳐지고, 상생적인 것을 새로 지어 만드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적 특징은 광구(匡球)로 표현되며, 해원상생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닌 선천세계의 전체속에 두고 있다.(행록2:15)

해원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닌 금수초목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선천세계 전체속에 나타나게 되는 해원상생은 타종교의 사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진리인 것이며, 동시에 후천선경 건설을 위한 중요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해원(解冤)을 위한 방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장에 전개될 도통진경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하도록 하겠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이해

대순진리의 핵심교의는 진멸지경(盡滅之境)에 처한 선천세계를 극복하고 상서(祥瑞)가 무르익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모든 교의가 집약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통진경은 그간 종지와 관련하여 논총(論叢)에서 논의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완성을 이룬 결정체(結晶體)를 의미한다.³⁵⁾

도통진경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후천선경이 지니고 있는 목적·방법·결과에 나타나는 구체적 특징과 이해를 통해 그것을 인식해 보자.

(1) 도통진경의 목적

도통진경의 목적은 도를 통한 진경세계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통은 대개 인간을 그 중심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진경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세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세계를 실현해나가는 대순진리의 방법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도통과 진경으로 나누어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목적·방법·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가) 도통실현의 목적

일반적으로 도통은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통하는 것³⁶⁾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의 내용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교법 3:31)

이는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총체적인 의미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통의 목적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에서 봉송(奉誦)되는 도통주(道通呪)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통은 팔괘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팔괘는 자연계(自然界)·인사계(人事界)의 모든 현상을 음양(陰陽)을 상징하는 부호(--)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그것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겹치게 하여 여덟가지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³⁷⁾ 따라서 사물의 총체적인 내용을 상징적 부호

35)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1·2·3·4집을 참조할 것

36)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善一文化社, 1977), 532쪽 참조

37) 양주동 감수, 앞의 책, 2137~8쪽 참조

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팔괘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오묘한 이치를 상징적인 부호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팔괘에 관한 이해는 사물에 관한 이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물의 총체적인 이치를 깨닫는 도통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제께서 도통이 팔괘에 있다고 지적하신 말씀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통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때, 팔괘를 이해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도통의 구체적 목적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므로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경』의 또 다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한계를 뛰어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³⁸⁾

이처럼 위의 『典經』 내용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이 단순히 천·지·인 삼계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그것을 용사(用事)하는데 도통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진정한 도통의 경지는 만사(萬事)를 이해하고 만사(萬事)를 임의(任意=마음 먹은대로 행하는 경지)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임의용사(任意用事)와 관련한 내용은(제생43) 지혜용력(智慧勇力)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매사를 뜻대로 용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의용사와 지혜용력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혜용력은 천문지리·풍운조화·팔문둔갑·육정육갑 등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특징적인 사실

38) 『典經』, 교운 1장 34절

을 확인할 수 있다.(예시 88)

지혜용력은 천문지리·풍운조화·팔문둔갑·육정육갑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면 지혜용력은 분명 사물에 내재한 오묘한 이치와 그것의 변화작용을 이해하고 용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참다운 도통은 지혜용력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지혜) 용사하는(용력)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용력은 유·불·선과도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행록5:21) 이러한 『전경』은 여러 구절의 내용을 통해 지혜용력(智慧勇力)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혜용력은 회문산오선위기혈(回文山五仙圍碁穴)·무안승달산호승예불혈(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장성손룡선녀직금혈(長城巽龍仙女織錦穴)·태인배례밭군신봉조혈(泰仁拜禮田群臣奉詔穴)과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혜용력으로 표현되는 도통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위에서 제시되는 혈(穴)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의거한다면 그것은 분명 유·불·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⁹⁾

이처럼 도통의 구체적 경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혜용력과 유·불·선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의 도통진경의 실현방법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나) 진경실현의 목적

진경(眞境)의 사전적 의미는 “신선(神仙)등이 사는 아주 깨끗한 땅”⁴⁰⁾ 또는 “본바탕을 가장 잘 묘사한 참다운 지경”⁴¹⁾으로 설명된다. 그것을 대순진

39) 이와 관련하여 『전경』, 행록 5장 15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이오. 국대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六月十五日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40)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民衆書林, 1990), 871쪽

41) 양주동감수, 앞의 책 1922쪽

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경은 대순진리에서 건설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이상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궁극의 목적세계인 후천선경을 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진경세계인 후천선경은 인류가 그간 꿈꾸어왔던 이상세계의 단면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세계는 무병장수의 불로불사를 실현시키며,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빈곤을 떨쳐버린 풍요(豊饒)의 세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온 전쟁과 시기 질투가 없어진 화평(和平)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예시80) 그러므로 진경세계는 인류가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신선이 노니는 선경(仙境)이면서 우주만유의 본래적 바탕이 잘 드러나는 세계임을 짐작하게 한다.

후천선경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는 이유로 선천세계에서 보여지던 전쟁·갈등·시기·질투의 위험요소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상생 화합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가 대립이나 종속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선천세계에서 보이는 억울함이나 그로 인한 원의 발생이 근원적으로 해결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음과 번뇌가 없으며, 과거·현재·미래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다.(예시81)

이는 인과(因果)를 깨닫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음양합덕·신인 조화의 원리가 후천선경에 꽃을 피우게 되므로 불로불사를 이루게 되며 물이나 불 그리고 바람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후천선경은 세계를 구성하는 인적·물적·자연적 요소가 선천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생 조화를 이루어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도통진경 실현을 위한 방법

(가) 도통실현의 방법

앞서 논의된 것처럼 도통진경은 유·불·선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교운1:41) 이와 같은 사실은 도통과 유·불·선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또 다른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먼저 도통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유·불·선의 특징을 살펴보자.

『전경』 교운1장 66에서는 유·불·선이 태동되는 배경을 천지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천지(天地)의 허무(虛無)를 받아 선(仙)이 포태(胞胎)하고, 천지(天地)의 적멸(寂滅)을 받아 불(佛)이 양생(養生)하고, 천지(天地)의 이조(以詔)를 받아 유(儒)가 욱대(浴帶)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의 내용에서 주장되는 이조·적멸·허무는 유·불·선에서 주장되는 우주의 근원이나 바탕을 나타낸 것으로, 그것을 천지로부터 부여받아 선천세계에서 유·불·선을 태동하고 그 근원을 가르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불·유는 포태·양생·욕대라는 각각의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불·유는 인간에게 천지의 근원을 설명하고, 불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르고, 유도는 세상에서 근원을 실행할 수 있는 행위적인 가르침을 전달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공사3:39)

이와 같이 불(佛)은 도를 양생하여 그 형체(形體)를 가르치는데, 주력하였고, 선(仙)은 도의 근원을 포태하여 그것의 조화(造化)를 중시했으며, 유(儒) 하늘의 조칙(詔勅)을 인간에게 전하여 그것을 범절(凡節)로 가르쳤다고 본다. 이처럼 유·불·선 선천세계에서 인간을 기르고 성장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었으며, 그것은 세계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전경』 내용에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또 어느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仙道와 佛道와 儒道와 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42)

위의 내용은 유·불·선이 선천종교와 인류의 정신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케 한다. 그리고 도통은 이러한 원리나 가르침을 합하여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도통과 유·불·선의 가르침은 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도통은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선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지나간 선천 종교에서는 위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통을 이루는데 한계를 지녔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원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제께서는 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선 세상에서 보였던 도통의 제한점(制限點)을 극복하고 비록 차등적인 면을 지니기는 하지만 누구나 수도의 결과에 따른 도통을 받게 된다. 이는 도통의 결과에 해원의 법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을 실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운1:40)

이는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도통을 인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선천세계는 진정한 도통을 이루지 못한 세계이며, 도통을 이루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위의 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음해(陰害)이다. 따라서 금번에 나타나는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생의 원리에 바탕한 도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유·불·선의 영역에서 도통을 염원하며, 각자가 나름대로의 수도를 통해 궁극적인 경지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모두다 성취하지는 못했었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선천세계에서는 모든 도법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는 상생(相生)의 원리가 작용되는 시대가 아니었다.⁴²⁾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도통

42) 「전경」, 교운 1장 65절

43)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경 공사 3장 14~15절 진묵대사와 김봉곡에 관련한 일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유학자인 김봉곡은 진묵대사의 도력과 지혜를 시기하고 음해하여 결국 진묵대사를 살해하게 된다. 그 결과 양자(兩者)는 결국 원한을 맺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 방법은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면서 선천의 모든 도법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는 상생(相生)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합덕과 관왕(冠旺)을 이루어 완성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유·불·선의 정수가 합쳐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예시12)

선천세계에서 유·불·선이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후천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정수가 통일된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의 원리에 의해 후천에서는 유·불·선이 정수가 합쳐지고 그것이 모여져 자연 성숙과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교운1:41)

유·불·선의 영역에서 각자가 수도를 통하여 도통을 이루었던 유불선 도통신과의 관련성은 상제께서 정하신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원리에 의해 수도인들이 도통을 이루는데 조력(助力)을 하는 존재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순진리의 수도법에는 유·불·선의 정수가 합쳐져 있으므로 그것의 정수를 기초로 수행한 정도를 수찰하고 그에 따른 도통을 이루게 하는 신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도인과 유·불·선 도통신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도통을 이루게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의 가능성은 대두목이 지니고 있는 도통줄에 기인하고 있다. 즉 도통신과 조화를 이루어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불·선의 정수를 합하고 통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두목이 정한 수도의 법방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도통은 조선(朝鮮)·금강산(金剛山)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권지1:11, 예시45)

이는 성격상 특정한 지역이나 지명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땅(지기)과 관련한 특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기(地氣)와 도통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앞서 전술한 유·불·선과 관련한 혈(穴)의 내용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은 땅에 담겨있는 기운(氣運)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는 특정한 기운을 담고 있는 땅(地氣)이 도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전경」의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44)

도통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존(人尊)은 대순진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신명과 조화를 이루어 도통을 이루게 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열거되고 있는 천존·지존·인존의 개념을 살펴보면, 천존은 신봉어천(神封於天), 지존은 신봉어지(神封於地), 인존은 신봉어인(神封於人)을 통해 설명된다.

천지의 신명을 하늘에 봉(封)한 때는 천존시대라하며, 천지의 신명을 땅에 봉한 때를 지존시대라하고, 천지의 신명을 인간에게 봉하는 때를 인존시대라 한다.⁴⁵⁾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천지의 신명과 인간이 합일을 이루게 되면 인존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대순진리에서 주장되는 도통의 핵심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천존→지존→인존시대라는 시대관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변화와 흐름을 인식하게 되며, 그와 관련한 등식(等式)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간은 천지신명과 합일을 이루어 인존이 되고 인존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리는 당연히 천지의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천지신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은 인존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시점은 지존시대→인존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시기는 땅이 지니고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명산(名山)이 많이 모여 있는 조선과 그 중에서도 명산인 금강산은 이러한 이치와 관련하여 볼 때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에 응기한 특정한 기운과 그곳에 응기한 신명은 도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삼제께서는 이와 관련한 공사를 보셨다(공사2:13)

44) 『전경』 교법 2장 56절

4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학생수강요지 참조

이처럼 상제께서는 천하의 명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강산의 겁기(劫氣)를 제거하시기 위한 공사를 보시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만이천 도통군자가 출현하게 되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에서 보이는 공사를 행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또다른 『典經』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예시14)

우리나라는 도술문명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도통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듯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불·선 도통신은 물론이고 땅(지존)도 그것을 이루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도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겁기가 제거되고, 해원상생을 이룰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방법은 특정한 하나의 결과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나) 진경실현의 방법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특성은 도통을 이루고 진경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통의 결과인 진경 세계는 후천선경의 참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경세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이해를 통해 그것이 갖는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진경세계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이해에 앞서 그것이 어떠한 원리나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상세히 살핀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장에서는 진경세계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진행과정을 통해 진경세계가 지니는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진경실현의 방법에서 주목해야할 첫 번째의 내용은 상제께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진경을 열어나가는 기초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다란 구도를 정하시고 그에 따른 실마리를 풀어 나가시고자 다양한 천지공사를 보시게 된다.(예시 25)

이는 오선위기(五仙圍碁)라는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 상제께서는 당시의 세계사적 구도를 설명하고 계신다. 이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열강의 각축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열강의 각축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인으로 설명되며, 중심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결의 구도가 종결된 뒤에 우리나라는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는 나라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바둑판과 바둑돌을 다시 되찾는 표현을 통해 커다란 이익이 있게됨을 설명하신다. 여기에서 바둑판은 세계를 의미하며, 바둑돌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세계의 민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상제께서는 우리나라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싸우지 않고 그것을 쉽게 얻게 됨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힘들이지 않고 좌상(座上)에서 천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다.(예시 28)

이처럼 진경건설의 첫 번째 방법은 서양에 건너가 역사를 하고 있었던 신명을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해 역사(役事)케 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진경(眞境) 건설의 중심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권지2:37, 예시29) 이와 같이 한국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상등국공사를 위해 상제께서는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공사를 보셨다.(공사3:22, 예시 27)

진경실현을 위한 방법은 이처럼 선천문화의 정수를 모두 모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과 한국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시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도통진경실현의 결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에 나타난 원과 한의 발생과 문화발생의 배경이 서로 다른 이유로 나타난 부작용과 피해는 도통진경실현을 위한 결과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선천세계에 나타났던 피해를 극복하고, 그를 해소됨은 당연히 그것의 결과이다.

선천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인류에게 많은 이로움과 긍정적인 발전

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의 결과는 또다른 반대급부를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것이 상생화합을 이루어 완성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와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이를 위한 공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⁴⁶⁾

이러한 이유로 상제께서는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중 하나로 인류문화의 정수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지기를 통일하는 공사를 보시게 된다.(공사 3:6)

이처럼 진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선천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문화와 사상의 통합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상제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진경세계는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시기·질투·전쟁이 없는 화평한 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지기통일공사에서 추구하는 통합과 성숙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후천문화의 기초가 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것은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중심시되거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을 배격하고 세계 사람 누구나가 불편함없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나 사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후천에서는 인종·민족·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사람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단일한 문화·사상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다.

진경실현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도통신과 문명신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권지2:37, 예시12) 이처럼 도통신과 문명신이 진경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도통신은 그 특성상 정신문명과 관련이 있는 신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명신은 물질문명과 관련이 있는 신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46) 「전경」, 공사 3장 5절

사실은 후천문명의 결과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상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원리가 작용되어 해원상생을 이룬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선천세계의 심각한 폐해의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부조화는 선천세계가 진멸에 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상제님의 의지는 도통신과 문명신의 역할과 조화로 나타난다. 이처럼 진경세계는 선천의 상극적 상황을 종결하고 해원과 상생을 토대로 한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을 이루고 인간이 신선이 되어 무병장수하는 불로불사의 세계상으로 이어진다.

IV. 맺 음 말

종지는 대순진리의 함축적인 요약과 함께 그것을 명쾌하게 관통하는 면을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대순진리의 특징이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집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면서, 종지의 연구를 통해 한층 더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론은 종지의 중요성과 대순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앞서 전술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음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우리에게 방대한 대순진리의 교리체계를 가장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석의 틀과 구도를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음양합덕은 선천의 현실이 진멸에 처한 원인을 음양의 불균형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균형과 조화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큰 구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음양합덕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내세워 그것을 통해 도통진경의 목적을 실

현시킨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내용은 신과 인간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에 주목하여 상세한 원리의 전개를 통해 전체의 구도 속에서 목적실현의 가능성에 관한 일 단면을 소개하였고 그것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해원상생(解冤相生)은 목적실현을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대순진리의 결과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목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는 결국 대순진리의 함축적인 요약과 함께 그것을 명쾌하게 관통하는 면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대순진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종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종지는 대순진리의 특징을 세분화시켜 종지라는 종교학적 구조를 통해 그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대순진리라는 방대한 교리체계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순진리는 종지를 통해 명확한 배분이 가능하고 세분화된 내용의 이해를 통해 보다 쉽게 대순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지는 단순히 진리의 배분적 특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지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적 특징은 대순진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대순진리를 등분하면 그 결과는 종지로 나타나며, 그것은 대순진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양합덕은 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모든 종지의 내용과 각각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고, 다른 여타의 종지도 마찬가지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지와 종지는 상호 충분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고리의 연결을 통해 종지의 개별적인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고 이해가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는 각각의 교리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는 바른 해석을 시도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교리는

독립적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호 긴밀한 관련과 연결속에서 서로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르게 나타내며, 이해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부터 각각의 교리체계가 분할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종지는 대순진리를 각각의 사상 체계로 나누는 중간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상제께서 펼치신 대순진리는 결국 도주님에 의해 종교적 특성과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종지는 그 종교적 특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제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바르게 펼치시고 훈육(訓育)하시기 위해 종지를 통해 대순진리의 핵심과 지향(志向)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천명하시기 위해 종지를 설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도주께서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종지가 지니고 있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 그것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종통이라는 중대한 명제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주님께서 제창한 종지의 내용은 결국 도주님께서 종통계승자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순진리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종지의 구성과 성립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지의 가치인식에 관련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종통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종지는 단순히 교리체계를 압축한 내용보다는 종지 그 자체가 또 다른 독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